

대구여성가족 브리핑

DAEGU WOMEN & FAMILY FOUNDATION BRIEFING

발행인 정일선 발행처 대구여성가족재단 기획/편집 김소정·정희경 연구원



작은도서관, 성평등하고 안전한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책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최근 마을 공동체의 거점이자 주민 문화공간의 중요한 인프라로 대두되고 있다.

도서관법(법령 제15167호) 제2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공공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작은 도서관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공립과 개인 및 단체 법인, 새마을문고, 종교시설, 아파트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사립이 있으며, 2018년 기준 대구에는 208개소(공립 59개소, 사립 14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대구의 작은도서관은 행정동 수(139개)보다 더 많으며, 주민들의 생활권역 속으로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성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한 공간이란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거나 특정 성 또는 특정 장소로만 돌봄의 역할을 한정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여성과 유아동의 이용도가 높은 만큼 그들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성인지 관점의 분석틀을 구성하여 작은도서관 시설과 공간에 대한 여성친화적 요소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안전 편의 쾌적성 등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각 지표에 대한 시설과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잘된 곳은 어린이이용변기와 수유공간을 조성하고 모서리가 둥근 책상과 난간 보호막을 설치하여 주이용자인 아동들을 배려한 반면 높은 곳에 위치한 도서 녹물이 나오는 세면대, 곰팡이 핀 벽면 등의 열악한 시설 특히 의무안전시설조차 배치되지 않은 곳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각종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과 더불어 안전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이동도서관의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점검 기준 마련과 성평등성 점검 제도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희경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원

CONTENTS

작은도서관 공간과 젠더이슈 2p 대구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3p 대구 작은도서관 Good-Bad 4p 작은도서관 도서관 성 평등성 7p 정책 제언 8p

※ 본 브리핑은 2018년 대구시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01 작은도서관 공간과 젠더이슈

도시공간으로서 도서관 공간의 성인지적 관점 분석틀이 미비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 도시 조성 매뉴얼을 통해 자체적인 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함. 이에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성평등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틀을 마련함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필요해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성별 관련성과 성별 요구의 차이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태임
 일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통해 자체적인 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 활용하거나 도시기본계획, 공공 시설 가이드라인에 성인지적 관점을 부수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그동안 도서관 공간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젠더이슈를 성인지적 분석틀로 분석하고자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분석틀을 구성함

편의성

도서관 이용에 있어 성형평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 즉, 신체적 약자나 가족동반 여성과 같은 이동 약자 등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간이 계획되어야 함. 이에 무장애 공간 설계 적용과 더불어 미취학 자녀 동반을 위한 일시 돌봄 시설, 수유실, 영유아 돌봄 화장실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적 지원이 요구됨¹

안전성

안전은 도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공간의 형평성에 중요 이슈임. 이에 신체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안전과 범죄에 대한 안전 등의 심리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사용, 아동을 위한 출입문 손캐임 방지 등의 물리적 안전시설과 조명, 비상벨, CCTV 등의 심리적 안전 설비 구비를 통한 안전 확보가 중요한 더 나아가 공공의 감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방식의 적용도 요구됨²

쾌적성

청결, 심미성, 쾌적한 환경, 심리적 안정감은 쾌적의 중요 요소임³. 특히 작은 도서관은 크기 않은 공간 규모에 많은 장서가 있고 주 이용자가 어린이, 노인 등의 약자인 경우가 많아 공기의 질, 빛기 등 내부 환경의 쾌적성이 매우 중요함. 또한 여타 다른 공공시설처럼 화장실의 쾌적성이 요구됨

도서물 성 평등성

어린이문학에 제시되는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재현이 젠더의 정형성을 보여 주는 경우 아동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 내 많이 대출되는 어린이문학에 대한 성차별적 내용과 성평등한 관점의 다양성의 가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성인지적 분석틀

젠더 이슈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성 평등성
작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성별 분리된 화장실) 이동 약재여성, 영유아 동반자 이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무장애 공간(점자블록)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등의 전용공간 돌봄 서비스 공간(일시 돌봄 시설, 수유실, 영유아 돌봄 화장실)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가시설의 안전성 열람시설의 안전성 내부시설물 재질, 크기에 따른 안전성 범죄 안전성(범죄행위에 대한 대비: 비상벨, 시야확보, CCTV 등) 재난 대비 소화기, 완강기 등 설치 여부 운영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청결 및 환기 상태, 조명 내부의 냉/난방 상태 시설내부 혼잡도(정리정돈)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의자, 책상여부 (재질) 운영자를 위한 적절한 공간 여부 화장실, 수유실의 청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물 콘텐츠 성 평등성 점검 - 등장인물의 가시성 - 성 고정관념 및 편견 - 공적 영역에서의 성 고정관념 및 편견 - 사적 영역에서의 성 고정관념 및 편견 - 성평등 가치 반영

02 대구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전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대구는 감소 추세임. 특히 사립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한편 작은도서관 시설과 지원 예산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며 평균 직원 수는 5년 전과 동일한 1명으로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작은도서관 전국은 증가 추세! 대구는 감소 추세?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 모두 증가 추세로 2018년 기준 6,33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사립은 2013년 대비 약 1.3배 증가한 4,897개소인 것에 반해 공립은 1,433개소로 약 1.6배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더 큼

대구의 작은도서관은 2018년 기준 208개소(공립 59개소, 사립 149개소)로, 2016년 [239개소]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차츰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공립은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사립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전국 및 대구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열악한 작은도서관, 개선 필요해

대구의 작은도서관은 면적과 장서, 예산 등 전반적인 면에서 소폭 개선되었으나 아주 미미함. 공립과 사립 모두 2013년 대비 평균 면적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평균 장서도 공립 약 1.1배, 사립 약 1.2배로 미미한 증가율을 보임. 예산은 공립의 경우 약 1.5배 증가(38,492천원), 사립은 약 1.3배 증가하여 증가 수준이 크지 않음. 한편, 평균 직원은 공립 2명, 사립 1명으로 그 수가 2013년부터 동일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공립은 감소한 반면 사립은 증가함

특히 사립은 전반적인 면에서 공립보다 더 열악한데, 평균 직원이 2013년부터 꾸준히 1명이고 자원봉사자 수가 9명에서 약 1.6배 증가한 15명임. 자원봉사자의 물리적인 증가는 도서관의 운영이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서관의 공간 지속성 제고를 위해 운영인력 안정화 등의 지원이 요구됨

대구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



03 대구 작은도서관 Good-Bad

모니터링 개요

공립 54개소
사립 116개소

- 모니터링단 구성 : 20명
-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시민 10명
-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10명
- 모니터링 실시 : 2018.07.12.~08.05.(25일간)
- 모니터링 대상 : 대구시 소재 작은 도서관 207개소 중 170개소
(공립 54개소, 사립 116개소)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파

편의성을 높이는 편의시설인 남녀분리화장실과 식수 시설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용 변기와 수유공간이 구성된 곳은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작은도서관 규모상 내부에 많은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실을 비치하고 화장실 내 어린이용 변기 설치, 노인들을 위한 돋보기 무료대여 등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기도 함

하지만 도서관 출입문이 여닫기 어려운 재질이거나 아동의 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과 도서 배치로 인해 제약이 있음. 또한 책장내 공간에 청소용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공간이 정돈되어 있지 않기도 함

편의성 관련 편의시설 구성 현황



GOOD ☺



- 도서관 내 식수배치
- 화장실 남녀분리
- 화장실 내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 영유아실 및 수유 공간
- 아이들 키에 맞는 책장 높이
- 휠체어, 유모차 출입시설
- 고령자들을 위한 돋보기안경 무료 대여
- 자전거 거치대 완비
- 어린이 도서분리 배치

☹ BAD



- 책장 사이 혹은 책장 구석에 필요없는 물건 배치
- 정리되지 않은 도서 및 책장 공간
-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도서 배치
- 어린이 도서부재
- 어린이 무겁고 불편한 출입문
- 청소도구 보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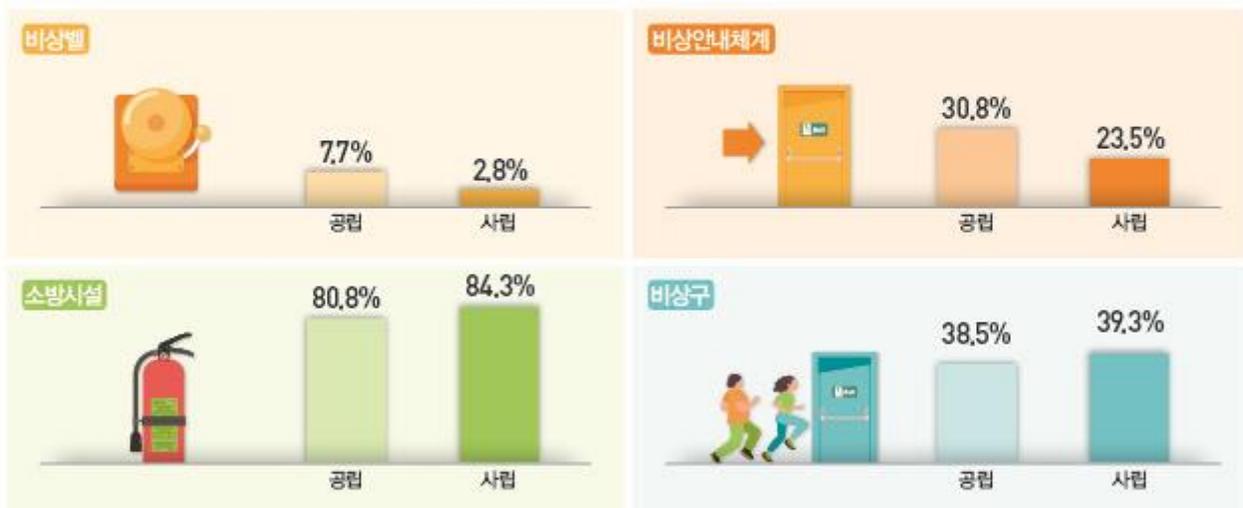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워

안전성과 관련된 시설은 의무시설인 소방시설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비 되지 않은 경우가 10곳 중 2곳이나 존재함. 특히 공립과 사립의 10곳 중 6곳은 비상구와 비상안내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시설 조성이 필요함. 한편, 심리적, 물리적 안전과 관련된 시설인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공립과 사립 모두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음

안전성 편의시설이 잘된 도서관은 기둥이나 책장 등 시설물에 부딪힐 경우를 대비하여 쿠션을 덧대거나 모서리가 둥근 책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CCTV와 반사경을 비치하여 도서관 내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대비에 용이하도록 함

그러나 2층 난간에 안전막이 없거나 높은 곳에 책장을 배치하여 추락의 위험이 내재된 곳도 있음. 또한 도서관 입구 앞에 대형 난로가 설치되어 있어 겨울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공간과 시설 구성이 요구됨

안전성 관련 편의시설 구성 현황



GOOD ☺



- 외부화장실내 연락 가능한 비상벨 설치
- 지진, 화재 등 비상시 안내체계 구축
- 소방시설 및 비상구 설치
- 기둥, 벽면 등 쿠션을 덧대어 부딪침 방지
- CCTV와 자연감시가 가능한 반사경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 미끄럼 방지 시설

BAD ☹



- 도서관 내 외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
- 보조시설 없는 기마른 계단
- 정리되지 않은 전선 및 전자 기기
- 보호장치 없는 계단 난간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 부족

03 대구 작은도서관 Good-Bad

쾌적한 도서관 이용 원해

쾌적성과 관련하여 도서소독기와 손소독기를 비치하여 위생을 도모하고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내 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또한 기존의 도서관의 형태에서 벗어난 카페형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로 기존의 도서관과는 차별성 있는 변화를 시도하기도 함

하지만 도서관이 지하에 있는 경우 위치상의 문제로 심한 습기와 냄새가 나기도 하며 바닥이 훼손되거나 수도에서 녹물이나오는 경우도 있었음. 심한 곳은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기도 하여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GOOD



- 공기청정기, 실내제습기 등 내부 공기질 개선 시설구비
- 청소상태 양호
- 적절한 조명과 실내 온도
- 도서소독기 설치

BAD



- 곰팡이 핀 벽면
- 정리되지 않은 도서관
- 찢어진 바닥
- 서가구석 쌓인 낡은 도서와 물건
- 화장실 내 정리되지 않은 청소도구
- 녹물 나오는 세면대

* 아이들을 위한 성평등 그림책

- 작은도서관 도서관 성 평등성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지는데 도와주는 성평등 도서를 소개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대구 여성정책박람회인 여성UP엑스포에서 성평등도서를 전시함
- 성평등 도서는 성평등을 주제로 삼거나 성평등한 시각이 잘 담긴 도서로, 의존적인 여성 캐릭터를 탈피한 '종이 봉지 공주',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메시지를 담은 '코송이 무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성평등 이슈를 다룬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우리가족인권 선언 시리즈' 등이 있음

아이들을 위한
성평등 그림책
소개 리플렛
(대구여성가족재단)



04 작은도서관 도서관물 성 평등성

어린이문학은 어린이들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매개로 성인이 되었을 때 역할 모델을 제시할. 특히 어린이문학에 제시되는 세계관과 현실 재현에서 젠더의 평형성을 보여주는 경우 아동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음

분석 개요

- 대구 시내 작은도서관 15곳의 최대대출 도서 목록중 총 100권의 유아·아동도서를 선정하여 성차별성 및 성평등성 내용 분석
- 분석대상 도서 : 창작동화 그림책 59권, 전래동화 그림책 5권, 아동도서 22권, 학습만화 14권

학습만화, 남성인물 중심의 어린이문학?!

유아·아동도서중 남성과 여성 인물이 '균형 있게 등장'하는 도서는 37.0%로, 52.5%는 인물의 성별 불균형성이 강함. 특히 '남성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도서(43.0%)가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 도서(13.0%)에 비해 약 3.3배 많음

인물의 성별 불균형성이 가장 강한 학습만화는 '균형 있게 등장'이 14.3%로 다른 도서에 비해 가장 낮음. 반면 성별 균형성이 비교적 고른 아동도서는 '균형 있게 등장'은 54.5%로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남성이 많이 등장'이 31.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어린이문학 내 남녀 등장인물 균형



어린이문학 속 성 고정관념 여전해

어린이문학 속 '기존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편견'은 16.0%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46.0%)과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49.0%)이 2건 중 1건으로 절반을 차지함. 특히 학습만화는 3가지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59.1%)은 아동도서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학습만화에서 주요 여성등장인물은 착하고 수동적인 여성성을 띤 캐릭터와 적극적이고 말괄량이인 양성성을 띤 캐릭터로 양분하여 등장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이 외모 중심적이라는 편견,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내용이나 특정성을 비하하고 열등하게 묘사하는 성차별적 내용이 많음

어린이문학에서 나타난 성 고정관념



04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하고 안전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함

- 작은도서관별 편의, 쾌적, 안전성에 대한 편차가 큼. 작은도서관 특성상 모든 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으나 기존에서의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 및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도서관별 안전시설 구성여부가 상이하고 안전과 관련된 인식이 미흡하여 안전시설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문화는 어린이들의 외부 세계 인식과 경험의 매개로 인지형성에 많은 영향을 줌. 따라서 아동의 편견없는 시선 형성을 위한 도서관 성평등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실태

제안

<p>1</p> <p>작은도서관 편의와 쾌적 도모를 위한 시설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을 배려하지 않은 도서 배치 및 책상 시설, 청소 용구가 적재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미흡 · 습한 실내 환경과 가파른 계단 등의 문제로 인한 이용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련 규정·지침 내 도서 외 '비품구입비 지원' 항목 신설 · 이동을 위한 안전한 형태의 책상, 의자 등 시설 보완 ·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 등 편의시설 관리 상태 개선 ·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관련 시설개선비 지원 필요
<p>2</p> <p>작은도서관 내 외부 안전 시설 구비를 통한 안전성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별 상이한 내·외부 물리적, 심리적 안전 시설 · 소방시설, 비상구, 비상안내도 등의 부재로 위급상황 발생 대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내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성분 및 재질 표시 · 여성이 많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봉사자를 위한 관내 및 외부 화장실 비상벨 설치 · 재난안전을 대비한 시인성 높은 비상안내도 설치 및 응급처치약 구비
<p>3</p> <p>안전교육 실시 정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구비하거나 안전시설은 되어 있으나 안전교육의 부재로 인한 안전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내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안전시설관리교육 정례화 · 대구시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아동대상 '아동식 안전체험차량' 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실시
<p>4</p> <p>도서관 성평등성 점검 및 규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내 아동문학 중 남성인물 중심, 성별 고정관념 등의 성차별 존재 · 표현의 자유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도서관 성차별성에 대한 점검 제도가 어려운 실정 · 현장에서 운영상에 있어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선정 관련 조례나 자체 규정 마련 · 대표 도서관을 통한 성차별적 도서관 관련 기준표, 목록 등 안내 공유 · 중앙도서관/거점도서관 등 도서관정책위원회에 성인지 전문가 위촉

* 1-3 남수현 장이현·조연숙 (20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독점성평등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4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국가도서관게시시스템 [https://www.libsta.go.kr/libportal/main/main.d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5 여성가족부 (2010),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6 '해당없음' 제외, 전체가 100%이 아닐 수 있음